

# 대구주보

대림 제1주일

2022. 11. 27. (가해) 제2350호



2023-2024 친교의 해  
교구장 사목교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친교로 하나되어



우리 교구는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지난 두 해 동안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말씀으로부터 힘과 희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신앙생활의 형태와 방법에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비롯해서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우리 여정의 핵심 가치들은 교회의 시작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으로도 중단 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던 지난 두 해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두 해 동안에는 ‘친교’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시노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구호로 축약되는 시노드 정신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고 그분의 신비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요, 교회는 그러한 하느님의 친교를 본받아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온 세상의 일치를 증거하고 촉구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삶과 사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가운데 더욱 절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또 요청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끝 간 데 없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열광적 소비주의에 휩쓸리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불어 살아야 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감염병 사태는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각자가 쌓아 올린 성채 안에 고립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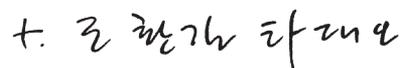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를 살고 증거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친교의 영성을 익히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친교의 영성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서로 남의 짐을 져 주고”(갈라 6,2),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붙어 다니면서 경쟁심과 출세욕, 불신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이기심이라는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친교의 영성은 다른 사람과 공동의 집인 지구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우리 교구는 앞으로 두 해 동안 성령을 통한 대화와 경청이라는 시노달리타스의 원리를 통해 친교로 나아가는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 친교를 살아가는 성사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특별히 복음적 친교를 살아가고 있는 수도공동체들의 가치에 주목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수도공동체들은 친교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수많은 영성적 보화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친교를 살아가는 모범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며 대화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수도공동체와 본당, 그리고 교구 내 기관들과 단체들이 서로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교구장인 저부터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친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내 모든 공동체는 시노달리타스의 삶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친교의 영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데 노력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대구대교구장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 다시 새로 기다림



이동성당 주임 | 천지만 베드로 신부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 문 앞입니다. 들판은 비고 낙엽마저 서둘러 흩어졌어도 아직 넉넉한 가을의 여운이 조금 남은 이들에게, 계절의 '순환'과 시간의 '진진'은 달력을 바꾸면서야 타협하겠지요. 지나간 달력을 고이 모신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탓에, 대림절은 늘 달력 교대식으로 시작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해는 새 달력에. 전례력은 겨울 한가운데 새 달력을 슬쩍 끼워 넣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죽음을 묵상하는 늦가을에, 그리스도 임금님을 장엄하게 고백하던 그 찰나에 겨울 문턱에 서서 종말과 재림과 성탄을 연이어 뫼비우스의 띠를 만듭니다. 위령 레퀴엠과 메리 크리스마스가 한 달력에 나란히 다정하게 있습니다. 죽음이 부활과 재림의 희망으로, 다시 오심이 새로 나심으로, 그렇게 단절 없이 매끈하게 이어지는 시간의 오메가와 알파는, 역사의 끝과 시작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계절은 '돌고', 시간은 '나아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노아 시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이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에 허망하게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선택과 갈림길에서 붙들려간 자와 남겨진 자는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를 거슬러 죄지은 인간에게 조화로운 무지개가 펼쳐지고 더 큰 희망과 자비가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이고 물질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상승을 촉진합니다.

홍수 이후에도 마치 계절이 돌고 돌듯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 갑니다. 그럼에도 또한 여전히 홍수 대신 재림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리니, 먹고 마심, 장가와 시집이 예전 같지 않고 진일보해야 합니다. 즉 깨어 기다리는 준비여야 합니다. 무엇을 또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새 시대의 방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탄생을 먹고 마심에서, 또 혼인의 일치에서 부단히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되 그 뜻이 다르고, 장가와 시집에 사랑과 일치, 친교의 소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시 대림이 시작됩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엄한 분부대로 도둑에게 털려도 안 되고 등잔에 기름이 없어도 곤란합니다. 시대의 도둑, 저잣거리 소음에 복음이 또 윤리가 털려도 안 되고, 신망애의 기름이 없이 어둠을 밝히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마침내 뫼비우스의 띠가 결승선이 되어 짝뚝 끊어지는 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홍수 때는 남겨지는 것이 좋았지만, 재림 때는 붙들려가는 것이 상수입니다. 종말의 아기 임금님께서 저기 오십니다. 계절은 돌고 시간은 나아가고 우리는 깨어 기다립니다. **궤**

##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면 선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삼중기도 훈화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선 위에 지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세의 불확실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인내라고 설명했다.

- 11월 13일 바티칸 뉴스

## 교황 “대립의 문명 안에서 갈등을 치유하려면 서로 만나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국제자원봉사 그리스도교단체연합(FOCSIV)’ 회원들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후 즉흥적으로 연설했다. 교황은 새로운 세계대전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함께 나누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배포된 연설문에서 교황은 소외된 이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오늘날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지구상의

다른 수많은 장소에서 짓밟히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평화가 없을 때, 힘의 논리가 만연할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 11월 14일 바티칸 뉴스

## 우크라이나, 교황 “대규모 미사일 공격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16일 수요일 일반알현 말미에 지난 몇 시간 동안 10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시 한번 강하게 호소했다. 교황은 “여전히 전쟁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지난 11월 13일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한복판에서 테러 공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했다.

- 11월 16일 바티칸 뉴스

## 교황, COP27에 “‘더 늦기 전에’ 젊은이들을 생각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11월 6-18일)의 폐막 전날 트윗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상처 입은 지구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11월 17일 바티칸 뉴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 주교관 건축이 시작되다

### 2월 10일 월요일

드브레 신부가 그의 새해 휴가를 여기서 보내려고 왔다. 나는 페랑 신부에 관해서 레이(Rey) 대주교에게 편지를 썼다.

### 2월 12일 수요일

오늘 저녁 나는 대성당에서 회장 피정의 시작 강론을 했다.

### 2월 13일 목요일

드브레 신부가 돌아갔다.

### 2월 14일 금요일

레이 주교가 페랑 신부를 맞아들이는지를 알기 위해 전보를 보냈다. 페랑 신부가 도착했다. 참사회의는 그를 받아들이는 의견으로 자문했다. 페랑 신부는 오늘부터 대구교구의 일원이 되었다.

### 2월 17일 월요일

줄리앙 신부가 쇠약해져서 자신의 성사집행을 중단해야 했다.

### 2월 21일 금요일

줄리앙 신부가 도착했다. 그의 건강이 좋아졌다.

### 2월 24일 월요일

주교관 건축 일을 맡게 될 중국인들 중 제1진이 도착했다. 그들은 우선 건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우물을 파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방 안에서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2월 26일 수요일

나는 묘지와 산에 관한 최근의 두 가지 법을 알리는 회람 제13호를 발송했다.

### 3월 2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마지막 일요일이다. 저녁때 명도회(明道會)에서 환등기 영사가 있었다. 페랑 신부가 일본에 관한 것을 상영했다. 악대가 연주를 했다. 지장이 없는 한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음력 마지막 일요일에 계속될 것이다.



청년 김대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영화 「탄생」 11.30.(수) 개봉

15세에 세례를 받고 신부가 된 후 25세에 순교할 때까지  
조선 근대의 길을 열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종횡무진 누빈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 가까운 극장의 상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참가신청

기간 | 2023. 7. 24.(월) ~ 2023. 8. 11.(금)  
장소 | 포르투갈(포르투-교구대회, 리스본-본대회),  
스페인(마드리드), 프랑스(파리)  
대상 | 만 19세 ~ 34세 (40명)  
신청 | 2022. 12. 4.(주일)까지  
문의 | 청년청소년국 청년사목 (053)264-2030

전석무료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FAURÉ REQUIEM 포레 레퀴엠

2022.11.28 (월) PM 7:30 주교좌계산성당

지휘 이정아 피아노 임윤지 | 오르겐 김홍주 | 특별출연 소프라노 최민영 · 바리톤 오승룡 · 가톨릭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구주보 말씀맞히기 정답**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축일 대구주보 4면 말씀따라잡기)

1. 하늘의 산 호렙(탈출 3,1)
2.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사는 곳(탈출 3,8,17)
3.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뭇가지가 생기며,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탈출 4,1-9)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본당과 가톨릭교회 환경단체에서 제공하는 생태교육에 참여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우리 베드로가 깨어있는 이유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3일(토) 10: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8일(월) 11:00 범어성당	교구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2월 3일(토) 10:00 지산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2월 3일(토) 11:00 앞산밀복카페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1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	-

### 수도회 성소 | 피정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2.4(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자: 23.1.6(금)~8(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서울)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참가비: 30,000원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피정(무료)

일시: 12.2(금) 18:00~3(토) 15:00 미사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운행: 조치원역앞 신한은행 17:00

청주고속터미널앞(다이소) 17:20

문의: (010)4400-1344 / (043)213-9103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피정

일자: 12.23(금)~26(월) (3박4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여성 누구나

문의: 김 토마스 수녀, (010)9353-1773

####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지

3년 이상 된 교우

신청: 11.30(수)까지

문의: (010)4350-9652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자)

위치: 대구 동구 검사동

문의: 986-2077

####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유형: 지적장애인 실버거주시설

대상: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으로

주간에 근로 및 재활훈련 참여 가능자

문의: 721-7090 / www.dalbo.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 칠곡가톨릭병원 보험공단검진

6대 암검진(복구 유일 폐암검진)

및 종합검진

저선량 CT 추가 도입 / 당일촬영 가능

문의: 320-2061 (08:00~17:00)

####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 교구 외 | 기타 알림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ca.or.kr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 053-959-7175 / 010-9597-717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암/노인성질환/투석요양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북여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 봉 일(파우스티노)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9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나스(NAS)간호학원**

**국비지원 | 간호조무사**

이형우(미카엘) 구효정(올리야)

**1544-8897**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사회사업 후원자 모집**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 문의 ☎ 053-650-3529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정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성영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데 맞은편)

☎ 053)942-882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  
2013년 11월 27일
- 김선배(요한) 신부  
1933년 12월 1일

교구 | 대구구 알림

청소년해외봉사단 모집

일자: 2023.1.30(월)~2.8(수)  
장소: 필리핀 파가이파이 일대  
대상: 만13세~18세 / 마감: 12.4(일)  
참가비: 150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신동진(요한), 최병도  
문의: 253-9550, (010)9382-9550

월배성당 성탄맞이 9일기도 특강

일자: 12.5(월)~12.15(목)  
시간: 19:30 저녁 미사 후  
문의: 월배성당, 636-130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연필초상화, 프랑스자수,  
우쿨렐레, 오카리나, 포슬린아트,

성가반주오르간, 서양화, 정리수납,  
사군자문인화, 제대꽃꽂이, 난타,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오르간, 지휘, 시편 성가, 성악 전공반  
문의: 255-4847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2.19~29 / 월 야간강의(목6회)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전원 50%(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660-5253~4 / (010)6563-0409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 평생교육원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월, 화, 금, 토  
성가 배우고 부르기: 월, 화, 목, 금  
발성교실: 월, 화, 목, 금  
평생교육원합창단: 화 10:30, 수 19:30  
문의: (010)3512-1565

토요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토) 14:00~17:30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현대백화점(12:30)-청라언덕  
(12:40)-성서홈플러스(12:50)-설화명곡  
역(13:10) 출발 / 문의: (054)954-3091

제48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기간: 11.30(수)~12.6(화)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문의: (010)9674-7563

지역청소년동기 기금마련

김종숙 (요안나) 성탄 구유전

기간: 11.28(월)~12.10(토)  
시간: 평일 10:00~18:00 (주일 휴관)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문의: 629-1117

배찬영(세라피나) 도예전

기간: 12.2(금)~21(수)  
시간: 10:00~16:30 / 휴관(목)  
장소: 예담갤러리(샬트르성바로소수녀회)  
문의: (010)3738-0485 / 전시 수익금은  
해외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쓰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11회 밥콘서트

일시: 12.11(일) 16:00, 19:00 (2회)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 전석 2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220581-0 밥밴드  
문의: (010)2521-6870 / (010)9577-7819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양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올리나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마로로)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바누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우리 부모님 좋은 영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할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동근(마르첼리노)  
이사 이현숙(레지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비엔 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대표전문의 **이윤형 (요셉)**  
삼정브리티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예전처럼 언제나,  
지금 나에게 스며드는 공간  
**젬마앤티크**  
Instagram gemma\_antique  
방문 예약 및 문의  
김진희 젬마 **010-5785-8952**  
(유류 출장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주세요)  
경북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67